

6. 허실편(虛實篇)

적을 이기는 비결을 설명하고 있다.

적의 허(虛)를 실(實)로써 공격하라는 것인데 허는 준비가 안된 것이고 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적을 아군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게 함으로써 적의 허점을 스스로 드러내게 하고, 습격하라는 것이다.

孫子曰 凡 先處戰地 而待敵者는 佚하고 後處戰地 而趨戰者는 勞라
손자왈 범 선처전지 이대적자 일 후처전지 이추전자 로

손자 말하기를 먼저 싸움터에 위치해서 오는 적을 맞이하는 자는 편하고, 싸움터에 뒤늦게 도착하여 싸움에 끌려다니는 자는 힘들게 된다.

孫子曰 凡 先處戰地 而待敵者는 佚하고 後處戰地 而趨戰者는 勞라

故로 善戰者는 致人而不致於人이니
고 선전자 치인이불치어인

그러므로 잘 싸우는 자는 적을 조종하되 적에게 끌려 가지 않는다.

故로 善戰者는 致人而不致於人이니

能使敵人으로 自至者는 利之也오 能使敵人으로 不得至者는 害之也니라
능사적인 자지자 리지야 능사적인 부득지자 해지야

적으로 하여금 스스로 오게 하려면 (적이)이롭다고 생각케 만들고, 적이 오지 못하게 하려면 해롭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

能使敵人으로 自至者는 利之也오 能使敵人으로 不得至者는 害之也니라

故로 敵佚이면 能勞之하고 飽면 能飢之하고 安이면 能動之하고
고 적일 능로지 포 능기지 안 능동지

고로 적이 안정되어 있으면 적을 피곤케 하고 적의 양식이 충분하면 굶주리게 만들며, 적이 편안하게 있으면 움직이게 해야 한다.

故로 敵佚이면 能勞之하고 飽면 能飢之하고 安이면 能動之하고

出其所不趨하며 趨其所不意하나니
출기소불추 추기소불의

적이 달려가지 않는 곳에 나가고, 적이 뜻하지 않는 곳으로 달려가야 한다.

出其所不趨하며 趨其所不意하나니

行千里而不勞者 是行於無人之地也 攻而必取者 是攻其所不守也
행천리이불로자 행어무인지지야 공이필취자 공기소불수야

천리를 진군해도 피로하지 않음은 배비가 없는 곳으로 진군하기 때문이요, 공격하여 반드시 성공함은 지키지 않는 곳을 공격하기 때문이며

行千里而不勞者 是行於無人之地也 攻而必取者 是攻其所不守也

守而必固者는 守其所不攻也라
수이 필고자 수기소불공야

지켜서 반드시 막아냄은 공격하지 못하는 곳을 지키기 때문이다.

守而必固者는 守其所不攻也라

故로 善攻者는 敵不知其所守하고 善守者는 敵不知其所攻하나니
고 선공자 적부지기소수 선수자 적부지기소공

그러므로 잘 공격하는 자는 적이 지켜야 할 곳을 모르게 하고, 잘 지키는 자는 적이 공격해야 할 곳을 모르게 하나니

故로 善攻者는 敵不知其所守하고 善守者는 敵不知其所攻하나니

微乎微乎여 至於無形이오 神乎神乎여 至於無聲이라
미호미호 지어무형 신호신호 지어무성

미묘하고 미묘하도다 무형의 경지여! 신비하고 신비하도다 무성의 경지여!

微乎微乎여 至於無形이오 神乎神乎여 至於無聲이라

故로 能爲敵之司命이니 進而不可禦者는 衝其虛也오
고 능위적지사명 진이불가어자 충기허야

그러므로 능히 적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이니, 나아가되 적이 막지 못함은 헛점을 찔러 공격하기 때문이요

故로 能爲敵之司命이니 進而不可禦者는 衝其虛也오

退而不可追者는 速而不可及也니라

퇴이불가추자 속이불가급야

물러가되 적이 쫓아오지 못함은 빨라서 적이 따를 수 없기 때문이다.

退而不可追者는 速而不可及也니라

故로 我欲戰이면 敵雖高壘深溝나 不得不與我戰者는 攻其所必救也오

고 아욕전 적수고루심구 부득불여아전자 공격소필구야

그러므로 내가 싸우고자 하면 적이 비록 성루를 높이고 참호를 깊이 파고 있어도 나와서 싸울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은

반드시 구해야 할 곳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故로 我欲戰이면 敵雖高壘深溝나 不得不與我戰者는 攻其所必救也오

我不欲戰이면 雖劃地而守之라도 敵不得與我戰者는 乖其所之也라
아불욕전 수획지이수지 적부득여아전자 괴기소지야

내가 싸우지 않으려 하면 비록 땅에 선만 긋고 지킬지라도 적이 싸움을 걸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는 바를 어긋나게 하기 때문이다.

我不欲戰이면 雖劃地而守之라도 敵不得與我戰者는 乖其所之也라

故로 形人而我無形이면 則我專 而敵分하리니
고 형인이아무형 즉아전 이적분

그러므로 적의 형태는 드러나게 하고 나의 형태는 드러나지 않게 하면 나는 뭉치게 되고 적은 분산하게 되니

故로 形人而我無形이면 則我專 而敵分하리니

我專爲一하고 敵分爲十이면 是는 以十으로 攻其一也니 則我衆敵寡라
아전위일 적분위십 시 이십 공기일야 즉아중적과

나는 하나로 뭉치고 적은 열로 나누어지면 나의 열로써 적의 하나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니, 나는 우세하고 적은 열세할 것이다.

我專爲一하고 敵分爲十이면 是는 以十으로 攻其一也니 則我衆敵寡라

能以衆擊寡면 則吾之所與戰者 約矣요

능이중적과 즉오지소여전자 약의

능히 우세로써 열세를 치면, 내가 싸워야 할 바는 간단할 것이다.

能以衆擊寡면 則吾之所與戰者 約矣요

吾所與戰之地를 不可知니 不可知면 則敵所備者 多하고
오소여전지지 불가지 불가지 즉적소비자 다

내가 싸우려 하는 곳을 알지 못하게 할 것이니, 적이 그것을 알지 못하면 (적은) 대비해야 할 곳이 많아지고

吾所與戰之地를 不可知니 不可知면 則敵所備者 多하고

敵所備者 多면 則吾所與戰者 寡矣라
적소비자 다 즉오소여전자 과의

적이 대비할 곳이 많아지면 내가 싸울 상대의 수는 적어질 것이다.

敵所備者 多면 則吾所與戰者 寡矣라

故로 備前則後寡 備後則前寡하고 備左則右寡 備右則左寡하고
고 비전즉후과 비후즉전과 비좌즉우과 비우즉좌과

(그러므로) 앞을 대비하면 뒤가 부족하고 뒤를 대비하면 앞이 부족하며, 좌측을 대비하면 우측이 부족하고 우측을 대비하면 좌측이 부족하며

故로 備前則後寡 備後則前寡하고 備左則右寡 備右則左寡하고

無所不備 則無所不寡니 寡者 備人者也오 衆者 使人備己者也라
무소불비 즉무소불과 과자 비인자야 중자 사인비기자야

대비하지 않는 곳이 없으면 부족하지 않은 곳이 없게 되는 것이니, 부족하다는 것은 적을 대비하기 때문이요, 우세하다는 것은
적으로 하여금 자기를 대비하게 하기 때문이다.

無所不備 則無所不寡니 寡者 備人者也오 衆者 使人備己者也라

故로 知戰之地하고 知戰之日이면 則可千里而會戰이오
고 지전지 지전지일 즉가천리이회전

싸울 장소와 싸울 시기를 알면, 가히 천리에 걸쳐 싸움을 치를 수 있을 것이다.

故로 知戰之地하고 知戰之日이면 則可千里而會戰이오

不知戰地하고 不知戰日이면 則左不能救右하고 右不能救左하며
부지전지 부지전일 즉좌불능구우 우불능구좌

싸울 장소를 모르고 싸울 시기를 알지 못하면, 좌익이 우익을 구하지 못하고 우익이 좌익을 구하지 못하며

不知戰地하고 不知戰日이면 則左不能救右하고 右不能救左하며

前不能救後하고 後不能救前이오 而況遠者數十里와近者數里乎아
전불능구후 후불능구전 이황원자수십리 근자수리호

전위가 후위를 구하지 못하고 후위가 전위를 구하지 못할 것이니, 하물며 멀리 수십리 또는 가까이 수리를 이격되면 어떻게 하겠는가

前不能救後하고 後不能救前이오 而況遠者數十里와近者數里乎아

以吾度之컨데 越人之兵이 雖多나 亦奚益於勝哉아
이오도지 월인지병 수다 역해익어승재

이렇게 헤아려 보건데 월나라 병력이 비록 많다고 해도 어찌 승리에 더 유리하다 하겠는가.

以吾度之컨데 越人之兵이 雖多나 亦奚益於勝哉아

故로 曰 勝可爲也니 敵雖衆이나 可使無鬪니라
고 왈 승가위야 적수중 가사무투

그런 까닭에 승리는 가히 만들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니, 비록 적이 많다 해도 싸울 수 없게끔 만들 수 있는 것이다.

故로 曰 勝可爲也니 敵雖衆이나 可使無鬪니라

故로 策之 而知得失之計하며 作之 而知動靜之理하며
고 책지 이지득실지계 작지 이지동정지리

그러므로 계책을 써서 적 득실의 계획을 파악하고, (내가 먼저 움직임으로써) 적을 움직이도록 해서 적 동정의 이치를 파악하며

故로 策之 而知得失之計하며 作之 而知動靜之理하며

形之 而知死生之地하며 角之 而知有餘不足之處라

형지 이지사생지지 각지 이지유여부족지처

적이 형태를 나타내게 하여 그들의 사지와 생지를 알아내며, 적과 부딪쳐서 적의 집중 및 절약 지점을 알아낸다.

形之 而知死生之地하며 角之 而知有餘不足之處라

故로 形兵之極에 至於無形이니 無形 則深間 不能窺하고 智者 不能謀니
고 형병지극 지어무형 무형 즉심간 불능규 지자 불능모

군사 배비(形)의 극치는 특정 형태가 없음에 이르는 것이니, 특징과 형태가 없으면 깊이 잠입한 첩자도 엿볼 수 없고, 지혜있는 자도 계책을 쓰지 못하게 된다.

故로 形兵之極에 至於無形이니 無形 則深間 不能窺하고 智者 不能謀니

因形而措勝於衆이면 衆不能知오
인 형 이 조 승 어 중 중 불 능 지

적의 형태에 따라서 알맞은 방법으로 승리를 조성해 나가면 사람들은 알아 차리지 못한다.

因形而措勝於衆이면 衆不能知오

人皆知我所以勝之形이나 而莫知吾所以制勝之形이라
인 개 지 아 소 이 승 지 형 이 막 지 오 소 이 제 승 지 형

그래서 사람들은 대개 내가 승리한 때의 모양은 알고 있어도, 내가 승리를 조성해 나간 형태는 알지 못한다.

人皆知我所以勝之形이나 而莫知吾所以制勝之形이라

故로 其戰勝不復 而應形於無窮이라
고 기전승불복 이응형어무궁

그러므로 싸워 이기는 방법은 반복함이 없고, (적과 나의 형세에 따라서) 끝이 없이 응용해 나가는 것이다.

故로 其戰勝不復 而應形於無窮이라

夫 兵形象水니 水之形은 避高而趨下하고 兵之形은 避實而擊虛하며
부 병형상수 수지형 피고이추하 병지형 피실이격허

(대체로) 전투력운동의 모습은 물의 흐름과 닮았으니, 물의 흐름은 높은 곳을 피해 낮은 곳으로 나아 가고, 전투력의 운동은 적의 실한 곳을 피해 허한 곳을 치며

夫 兵形象水니 水之形은 避高而趨下하고 兵之形은 避實而擊虛하며

水因地而制流하고 兵因敵而制勝이라
수인지이제류 병인적이제승

물은 땅의 형태에 따라 흐름을 바꾸며, 전투력은 적의 형태에 따라 승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水因地而制流하고 兵因敵而制勝이라

故로 兵無常勢 水無常形하니 能因敵變化 而取勝者를 謂之神이라
고 병무상세 수무상형 능인적변화 이취승자 위지신

그러므로 전투력 운용에는 일정한 형세가 없고 물도 일정한 형태가 없으니, 능히 적의 변화에 맞게 승리를 확보해 나가는 자를 일컬어 신의 경지라 한다.

故로 兵無常勢 水無常形하니 能因敵變化 而取勝者를 謂之神이라

故로 五行無常勝하고 四時無常位하며 日有短長하고 月有死生이니라
고 오행무상승 사시무상위 일유단장 월유사생

그런데 오행의 어느 요소도 다른 모든 요소를 이길 수는 없으며, 네 계절도 언제나 고정됨이 없으며, 해도 길고 짧음이 있고,
달도 차고 기울어짐이 있는 것이다.

故로 五行無常勝하고 四時無常位하며 日有短長하고 月有死生이니라